

# 文 “좋은 일자리 고마워, 한화큐셀 업어드리러 왔다”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 대기업 1호 방문

3조3교대서 4월 ‘4조3교대’ 변경  
500명 신규채용·임금 90% 보전  
진천공장 정규직 비율 91% 달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화를 업어주기 위해 충북 진천 한화큐셀로 1일 달려갔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화큐셀 진천 공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부합, 미국의 셰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애로 청취 및 기업 격려,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한화큐셀을 ‘대기업 1호 방문지’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장을 찾자마자 꺼낸 첫 인사말에서 “오늘 특별히 한화큐셀을 방문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고 싶어서”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업어드릴까요?”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던 김승연 회



문재인 대통령이 김승연 한화 회장 등과 함께 1일 충북 진천 한화큐셀 진천공장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에서 열린 일자리나눔기 공동선언식을 마친 후 김승연 한화 회장(앞줄 오른쪽 5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도 미소를 지었다.

한화큐셀 노사는 1550명이 3조3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오는 4월부터 500명을 신규 채용해 4조3교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도 현행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된다. 특히 노사는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25% 줄어들이지만 임금은 90% 이상 보전키로 약속했다.

정규직 비율 등 다른 지표에서도 한화큐셀의 채용은 돋보인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6년 1월 진천에 공장을 세우며 지난 2년 동안 인력 2000여 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비율은 91%에

달한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엔 ‘일자리 창출대상’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나눔을 통해) 6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던 것을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또 보다 일찍 퇴근하게 돼 휴식이 있는 삶도 가능해졌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나누기,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매출액 1조1532억원 가운데 70% 가량인 8065억원 어치를 해외에서 거둔 한화큐셀은 현재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1조

2000억원이 투입된 진천 공장은 회사 전체 생산량의 45% 가량을 차지한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다른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갈때 우리는 거꾸로 한국으로 왔다. 생산한 모듈은 약 40개국에 판매하고 이 가운데 미국, 한국, 터키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미국이 지난주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셰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면서 복병을 만났다.

한화측은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미국 시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판매량의 절반 수준까지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유럽, 호주, 일본 등 대체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을 비롯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두 손 놓지 않고 기업 피해가 없도록, 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태양광 발전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3020정책’,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부합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선도시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한화큐셀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화큐셀이 진천에 자리잡으면서 인근 지역에 태양광 관련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입주,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은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가 됐다”면서 “진천혁신도시가 세계 최고의 태양광 산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회장과 함께 공장도 둘러봤다.

/김승호·오세성 기자 bada@metroseoul.co.kr

## 유망기술 보유기업 ‘기술 사업화’ 돕는다

###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 단기코칭 등 전문가비용 전액 지원

기술개발을 끝내고도 판매 등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이 실시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들에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다.

신청대상은 정부 R&D 성공 판정 기술 및 특허가 등록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

기업으로 신청 시 해당 기술은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하며, 기업 당 1개의 기술사업화 추진 과제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화 기획 대상기업으로 뽑히면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단기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전문가 비용은 중진공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자영업 ‘기업·혁신형’ 성장 환경 조성”

### 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최희식 금융감독원장이 1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식 원장은 이날 KB국민은행 사당동 지점 및 KB소호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자영업이 국민의 생업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기업형·혁신형 자영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원활한 자금공급 추진 ▲일시적 자금난 극복을 위한 상환유예 프로그램 활성화 ▲컨설팅 지원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은행권의 자영업자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채신희 기자 csh91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77호(2017.10.17)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상담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